

제 13차 대한두경부중양학회

■ 연 제 초 록 ■

1

성문상부암과 하인두암에서 경부전이 양성 및 양측 경부곽청술의 의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이형석 · 태 경 · 김주목 · 고재성 · 신창식

성문상부는 림프조직이 많아 성문상부암의 경우 주위 상 및 중내경정맥림프절로 전이가 많이 일어나며 발생학적으로 중앙 구조물이기 때문에 양측 경부전이 많이 일어난다. 하인두암도 점막하 림프조직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 경부전이 많이 일어나며 양측으로 전이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저자들은 한양대학 병원에서 수술 및 방사선치료를 하였던 성문상부암 32례와 하인두암 19례의 환자에서 병기, 경부전이 양성, 잠재전이율, 경부곽청술 형태, 재발율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성문상부암 및 하인두암에서 경부전이 양성과 양측 경부곽청술의 의의를 알아보았다.

2

영동세브란스병원의 후두암 치료경험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김광문 · 최홍식 · 김영호 · 조정일
김홍을* · 한재욱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1년간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135명의 후두암환자를 경험하였기에, 그 치료경험과 추적관찰 결과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대상군중 3례를 제외한 132례는 편평상피세포암이었으며, 원발병소는

성문상부암이 47례, 성문암이 87례, 성문하부암이 1례였다. 병기의 결정은 AJCC(1992) 분류법을 따랐으며, I기가 66명, II기가 18명, III기가 23명, IV기가 25명이었다. 치료는 원발병소와 T병기, 경부임파절전이 여부에 따라 방사선요법, 수술단독요법 또는 병합요법을 사용하였다. 부위별 5년 생존율은 성문상부암이 52.8%였고, 성문암이 71.6%였다. 병기별 5년 생존율은 I기가 82.4%, II기가 60.3%, III기가 53.8%, IV기가 28.6%였다. 조기성문암의 경우 60명의 T1성문암환자중 53명이 초치료로 방사선치료를 받았으며 성대전연합부의 중앙침범여부가 방사선치료 성적과 예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진행된 후두암의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술후 치료성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2차원발병소의 조기발견 및 치료도 생존율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하겠다.

3

이하선 종양의 임상적 고찰

예수병원 외과
강정범 · 양성환 · 박성길 · 오성수

이하선은 안면신경과 접해있는 해부학적 구조로 수술 후 안면신경 마비가 올 수 있으며 또 괴막형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수술 후 국소 재발율이 높아 성공적인 치료를 위하여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수술 수기를 요한다. 이에 저자들은 1986년 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만 10년동안 본원 외과에서 수술로서 확진된 113례의 이하선 종양(양성 88례, 악성 25례)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1) 성 별: 양성종양에서 남자 33례(37.5%), 여자 55례